

예루살렘의 사도적 공동체

-아세르 인트레이터

약 이천 년 전, 예루살렘에는 사도적인 회중/교회/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회중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 및 모임은 이 최초의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특별히 2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은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전형이며 예루살렘에 있는 저희 [아하발 예수아] 모임의 비전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최초의 모임은 복음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결승선”입니다. 저희는 저희 조상들이 시작한 “경주를 마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갔습니다. – **행 1:8**. 오늘날 복음은 땅끝에서부터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모임은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라는 위임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위대한 “대명령”은 예수아께로부터 그 분의 제자들에게, 그 다음은 온 공동체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공동체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의욕으로 완전히 충만하여 헌신되었습니다. 그들의 혼에 깃든 불타는 열정은 성령의 불로 불붙어 있었습니다(**행 1:8; 2:2-4**).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는 **사도행전 1장**의 위임 명령에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그 최초 모임의 핵심 멤버는 원래 120명뿐이었습니다(**행 1:15**). 이 숫자는 놀랍도록 적은 것입니다. 예수아의 사역의 영향을 받고 그 분을 “믿은”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에 함께 모인 이들은 적은 수의 남은 자뿐이었습니다.

초대 제자들은 예수아의 비전에 헌신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강림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공통의 비전과 함께 공통의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경험의 공유에서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위임이 태어났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내보내는 일은 이러한 체험 뒤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도 복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위에 임한 기름부음과 유사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행 2:16-18**).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황홀경 표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고(**민 11:29, 삼상 10:5-6**),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의 예언적 메시지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사 61:1-2; 계 19:10**). 그들은 매일 기도와 찬송, 예언과 말씀 선포, 가르침과 방언으로 그 체험을 살아냈습니다(**행 1:14, 2:40-47; 4:31**).

그들이 공유한 비전과 체험은 초대 제자들로 하여금 동역자 의식과 사랑 가운데 서로에게 비상한 헌신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충성과 청렴의 깊은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1. **교제** -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의 가정에서 먹었습니다 (**행 2:46**)
2. **관대함** - 그들은 나누기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행 2:45; 4:34**)
3. **거룩** - 죄인은 그들의 모임 중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행 5:5, 10**)
4. **기적** -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행 2:43; 5:11-12; 9:40**)
5. **연합** -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았습니다 (**행 1:14; 2:1, 44, 46; 4:32, 34**)

초대 공동체는 왕국의 비전, 영적인 능력, 언약적 관계라는 세 가지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 가지 요소 모두에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임 내부의 핵심 인물들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고(**행 6:1; 22:2**),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살며(**행 2:47**) 종교적 전통을 따랐고(**행 10:14; 15:10; 21:20**) 절기를 지켰으며(**행 2:1**) 성전 기도와 의식에도 참여했습니다(**행 2:46; 3:1; 24:17; 28:17**).

그러나 그 핵심 그룹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곧 여러 언어와 온갖 관습을 가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 **행 2:5-6**.

그래서 초대 공동체는 곧 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인들의 내부 집단과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다른 언어 그룹에서 온 좀 더 광범위한 국제적 집단, 이렇게 두 집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의사 결정, 위임, 예산, 기금 모금, 사명의 우선순위 결정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 행 6:1.**

그러한 분열은 꽤나 불편했고,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키고(**행 1:6**)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행 1:8**) 두 가지 위임 명령 때문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는 오늘날 저희 모임에 그와 똑 같은 긴장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한 모임 가운데 문제를 [거기다 유대인이라는 것도] 상상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모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1) 모든 면에서 현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2) 위대한 하나님 왕국의 대명령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 이는 두 단계의 리더십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한 공의회는 주로 현지 공동체를 책임지는 "장로들"로 구성되었고, 다른 하나는 주로 좀 더 광범위한 위임 명령을 책임지는 "사도들"의 공의회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들..." - 행 15:2, 4.** 때때로 이 두 그룹은 중첩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함께 모이곤 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 행 15:6.**

저희 공동체와 예루살렘의 다른 모임들이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추구함에 있어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정합니다

지난 주 소식지에서 유대인이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엘리사의 눈 앞에서 엘리야가 승천했으며, 예슈아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요르단 강에 있는 장소의 이름(카싸르 알 예후드)의 의미는 아랍어로 "유대인의 도강

(crossing)"이 아니라 "유대인의 궁(palace)"입니다.